

영재초등학교 교사들의 차별화된 교수법에 관한 신념과 실천

호 사 라
University of Virginia

Gifted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s Regarding Differentiation in a Special School for Gifted Elementary Students

Sa Rah Ho
University of Virginia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가 그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 등 어떠한 상황에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영재교육을 시작하는 또는 이미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 중의 하나는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내용,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일 것이다.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 및 연구자들 역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늘 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또는 평범한 학생의 차이를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비교하는 가운데 영재의 특성을 구분하고,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 교수-학습 전략 등을 제안해왔다. 그런데, 영재교육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 질문보다 우리의 영재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을 두 영재교사의 실천과 신념을 비교하는 가운데 찾을 수 있었다.

연구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미국 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한 도시의 영재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세 영재교사의 교수행위와 각 학급의 모습을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자연주의적 패러다임(naturalistic paradigm)에 근거한 질적 연구모형을 따랐다. 연구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행동관찰 프로토콜(observation protocols)과 인터뷰 질문들을 구조화했고, 문서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행동관찰 결과가 최대한 현장 그대로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본격적인 현장연구 이전에 사전 현장 답사 및 교사, 학생과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으로 하였다. 사전 현장 답사결과로 행동관찰 프로토콜과 인터뷰 질문은 수정, 보충되었고, 이러한 수정, 보충은 인터뷰 및 현장 관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 데이터 전시(data display), 결론 도출 및 확인(conclusion drawing and verification)의 과정을 통해 각 교사에 대한 사례내 분석(within-case analysis) 연구와 세 교사에 사례를 비교하는 사례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본 발표에서는 학생의 학습과정에서의 참여도와 동기 수준, 교수-학습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과 학생들의 학습요구(learning needs)에 대한 인식 및 규정, 평가(assessment)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활용의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사례간 분석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A, B, C 세 교사가 속한 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로 팀을 이루어 주와 시가 요구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영재의 수준에 맞추어 차별화하고자 5년에 걸쳐 영재교육과정에 관한 학자와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따라서 세 교사가 각 단원을 가르칠 때 손에 쥐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 소재 및 내용은 대략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세 교사는 모두 영재교육에서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교수방법(teaching strategies)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교수-학습을 이끌어가는 과정(process)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A교사의 경우 다른 두 교사와 달리 영재 학생 간에 존재하는 수준의 차이, 흥미와 학습 양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과제, 그루핑(grouping), 진도를 달리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계획, 진행하였고, 따라서 관찰된 수업의 많은 시간동안 학생들은 그룹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과제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학습 요구(learning needs)에 대해서도 다른 두 교사가 각 학생의 부족한점, 계획했던 교육 목표중 달성하지 못한 내용과 기능을 메꾸는 것(remediation)이 학생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A 교사는 학생들의 약점 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장점, 강점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 수준, 방법을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differentiation)이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채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B, C 교사의 경우, 한 단원을 마칠 때 그 단원의 핵심적인 개념, 용어, 원리 등을 지필형의 전통적인 평가(traditional assessment)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A교사는 그 단원의 핵심적인 개념, 용어, 원리 등을 강조하되, 그 배운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학습 양식에 따라 구두발표, 그림, 기사쓰기 등의 표현 양식에 있어서의 선택(choice)를 허락하고,

보다 각자에게 의미있는 방식의 수행(performance) 및 산출물(product)을 요구하는 대안적 평가(alternative assessment)를 선택했다. A 교사의 경우 B와 C교사에 비해 자신이 일반학생보다 선수학습 준비도와 능력이 우수한 영재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규정하고 차별화되어 개발된 교육과정, 영재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배운 교수-학습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학생 개인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각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꾸준히 묻고 있었다. 이 결과, 두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에의 적극성과 동기화된 정도는 수업마다 차이가 있었던 반면, A 교실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즐겁게 보내는 경향이 뚜렷했다.

학교교육 내에서 영재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자들과 교육자들은 한 학급의 중간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 눈금을 맞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식을 선수학습 준비도와 학습 능력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차별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영재교실, 영재교육원, 영재학교에 교사들에게 오는 학생들은 일정의 판별과정을 거쳐서 온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 어른들이 한 명, 한 명 모두 다르듯이, 선수 지식, 동기, 학습 양식과 관심 영역이 서로 서로 다르다. 또한 아무리 잘 개발된 교수-학습 지도안을 들고 들어가고,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지식으로 중무장하더라도 일단 교실에 들어가 수업이 진행되면, 각 학생의 특성에 따라 결정과 조정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비교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늘 익숙하다. 그러나 이 익숙한 방식을 넘어서서, 각 개개인의 학생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를 보는 눈, 그것을 묻는 마음이 영재아동은 일반아동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다르게 가르쳐야하는 지를 묻는 것보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